

전국 치매안심센터 올해 완전 개소 목표

독거노인 전수 치매검진 실시키로

정부는 올해 내 모든 치매안심센터 완전 개소하고, 독거노인 전수 치매검진을 실시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제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치매국가책임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을 논의했다.

2017년 9월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관리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20개 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1년 6개월간 추진해왔다. 치매국가책임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빈틈없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각 시·군·구 보건소 256개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치매노인과 가족들이 1:1상담부터 검진, 치매센터, 가족카페, 맞춤형 사례관리까지 통합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2월말 기준 치매안심센터 177곳은 공간·인력을 갖추고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머지 79곳은 올해 연말까지

기반시설을 모두 갖추는 것을 목표로, 현재 상담·검진·치매센터 등 필수서비스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정부는 올해 내 모든 치매안심센터 256곳이 서비스를 완벽히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하고, 분소형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고위험군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독거노인 대상 전수 치매검진을 실시한다.

△장기요양 확대 통한 돌봄 강화= 2018년 1월부터 인지기능등급 제도를 시행해 경증치매노인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를 확대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을 2022년까지 344개 신축해 확충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앞으로 기존 장기요양시설을 치매전담형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촉진하기 위해 시설기준을 개선한다. 법령개정 및 전산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 의료비 지원 통한 부담 완화=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줄였다. 신경인지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금을

낮췄으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치매안심병원 확충을 위해 공공요양병원 50곳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 중이다.

향후 치매검진 비용을 더욱 줄이기 위해 병·의원에서 신경인지 검사를 받을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현행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치매전문병동 설치 완료 후 시설·인력기준을 갖춘 곳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한다.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 그동안 저소득 중증 독거 치매노인을 위한 공공후견사업을 시범 실시했다. 치매안심마을 조성을 위해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경찰청에서 실시하던 치매환자 전문사건등록을 치매안심센터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경증치매노인도 피후견인으로 선정 받을 수 있도록 하고, 60세 이상이었던 후견인의 나이 제한기준을 폐지한다.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인식개선,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초점을 맞춰 256개 기초자치단체의 모든 지역에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주혜진 기자 hjoo@koreanurse.or.kr

외국인환자 유치 10년간 누적 226만명

중국어 환자 비중 가장 높아... 유치국가 190개국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환자가 38만명에 달했으며, 지금까지 10년간 누적 200만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환자 수가 37만 8967명으로, 2017년 32만 1574명 대비 17.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된 이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환자는 누적 226만명으로 10년 만에 200만명을 돌파했다.

2018년 한 해 190개국의 외국인환자가 우리나라를 찾았다. 중국(31.2%), 미국(11.9%), 일본(11.2%), 러시아(7.2%), 몽골(3.7%) 순으로 많았다.

일본, 동남아(태국·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환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거의 대부분 국가가 늘었다.

전년 대비해 중국인 환자는 18.5% 증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일본인 환자는 56.0% 증가해 전체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각각 46.6%, 37.1% 급증했다.

2017년 대비 우즈베키스탄은 20.4%, 러시아는 9.4% 늘었으며, 이들은 내과통합 진료와 검진센터를 주로 많이 찾았다. 그러나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국가는 전년보다 4.8% 감소했다.

진료과별로는 내과통합 진료과가 약 9만명으로 전체의 19.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성형외과(14.4%), 피부과(13.7%), 검진센터(8.9%), 산부인과(5.3%) 순이었다.

전년에 비해 피부과(47.0%), 성형외과(37.1%), 산부인과(21.5%), 일반외과(14.0%), 내과통합(11.8%), 한방통합(8.5%) 순으

로 증가했다. 치과(-6.2%)와 안과(-4.1%)는 다소 줄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을 찾은 외국인환자가 37.5%로 가장 많았다. 종합병원(25.0%), 상급종합병원(21.3%), 병원(10.2%)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의 64.8%를 유치해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12.2%), 인천·대구(각 4.7%), 부산(4.0%) 순이었다. 전남, 광주, 충남, 울산, 제주, 강원 등 비수도권 지역도 전년보다 유치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된 이후 10년 동안 외국인환자 수는 연평균 22.7%에 달하는 높은 성장세를 유지했다.

2009년 6만명으로 시작한 2015년에 누적 환자 수 100만명에 이르렀고, 그 후 3년 만인 2018년에 200만명을 넘어섰다.

유치국가 수는 2009년 139개국에서 2018년 190개국으로 늘었다. 특히 한 해 100명 이상의 환자를 유치한 국가 수는 2009년 27개국에서 2018년 69개국으로 증가했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의 비중은 2009년 12.2%에 머물렀으나, 이들 지역의 유치률 등이 점차 활발해짐에 따라 2018년에는 18.3%로 6.1%p 높아졌다.

복지부는 그동안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유치기관 등록·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관련 법령·제도 마련을 통해 외국인환자의 권익과 안전을 강화했다.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한국 내 외국의료인 연수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안정적 체계를 확보했다.

주혜진 기자 hjoo@koreanurse.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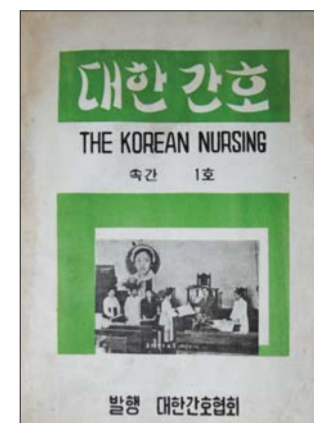
대회가 열렸다. 6개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공사례를 발표해 '생애주기별 전략' '지역사회 주민참여방

안' '생활터별 접근방식' 등 생생한 경험을 지역 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진숙 기자 jslee@koreanurse.or.kr

[간호역사뿌리찾기]

'대한간호(속간1호)' 다시보기 ①



'대한간호(속간 1호)'는 대한간호협회가 1953년 6월 26일 발간한 잡지입니다. 6.25전쟁 당시 피난지 부산에서 발간했습니다.

원본은 전문적인 보존·복원 처리를 거쳐 영구적으로 보존이 가능한 기록물로 2010년 1월 26일 다시 태어났습니다.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역사뿌리찾기사업의 일환으로 국가기록원의 보존·복원 지원사업에 신청했고,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간호사신문에서는 '대한간호(속간 1호)'에 실린 글을 발췌해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아래의 글은 원문 그대로 게재했으며, 간호사 명칭 또한 당시 불렀던 그대로 간호원으로 실었습니다.

너는 간호원이다

- 착한 사람에게는 비둘기 같이 순하고 곱게 보여도
악한 사람에게는 사자 같이 무섭게 엄하게 보인다.
- 약한이 병든이 어린이 늙은이에게는 마음을 다하여 봉사한다.
그러나 힘으로 너를 놀리려는 사람에게는 어데까지나 대항한다.
돕기는 하여도 싫은 것을 억지로 따르지는 아니한다.
- 세상은 날로 변한다. 너도 오늘의 사람이다.
새 세계에 새 사람은 새 지식을 가져야 한다.
- 시간은 모든 것을 물어 감추지 않고 언젠가 들어낸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잘한 것은 물어두어도 못한 것은 감추지 아니한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라.
- 울땀이 같이 밝은 눈을 가지고, 개아미 같이 부끄럼 하여라.
알고는 진즉 속아도, 모르고 속는 멍청이는 되지 마라.
- 네 몸은 튼튼하나? 네 몸을 튼튼히 하는 법은 아는가?
남의 몸 돌볼 줄을 알면 제 몸 돌볼 줄은 먼저 알아야 한다.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 우수 기관 표창

보건복지부는 제11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를 4월 16일 개최했다.

성과대회는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평가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일선 건강증진 담당자를 격려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다.

올해는 3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우수 지방자치단체 명단은 다음과 같다.

△최우수= 서울시 광진구, 부산시 사하구, 대구시 북구, 인천시 미추홀구, 광주시 북구, 대전시 동구, 울산시 동구, 경기도 시흥시, 강원도 고성군, 충북 진천군,

충남 홍성군, 전북 군산시, 전남 함평군, 경북 포항시, 경남 진주시, 제주도 서귀포시(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우수= 서울시 송파구·성동구, 부산시 남구, 대구시 동구, 인천시 부평구, 경기도 평택시, 강원도 횡성군·홍천군, 충북 증평군, 충남 보령시, 전북 남원시, 전남 목포시·장흥군, 경북 고령군·의성군, 경남 통영시·사천시.

이날 시상식과 함께 보건소의 성공적인 건강증진사업 사례를 담당자가 직접 발표하는 우수사례 학술



래어달메디컬 기술지원 프로그램

구입하신 장비 상태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 드립니다



- ✓ 시뮬레이션 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미작동과 장비 운영 기술은 시뮬레이션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우수한 교육 내용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고객의 장비를 최상의 상태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 ✓ 검증된 기술지원서비스로 고객의 장비에 관한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고 계획된 관리 체계로 지속적인 환자 치료 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기술 지원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 5년** 시뮬레이터 보증 기간 연장
구매 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X** 소모품 교체 패키지
대부분의 주요 소모품(PM) 혹은 가장 빈번히 소모되는 제품 교체(PM Lite) 중 택 1 가능
- 24h** 최우선 전문 수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최우선 전문 수리(24시간 이내 방문)
- 무상** 장비 평가 시스템
무상 정기 점검 서비스 시스템 운영(년 2회)
- 무상** 대여 서비스
학기 중 장비 입고 수리 시 무상 대여 서비스
- 예산** 편성 계획표
지속적인 장비 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 계획표 제출